

불안한 지반침하 구멍난 관리체계

광주·전남 석회암 지대·폐광산 등 원인 조사·대책 허술 시설물 이력 체계적 관리·지하통합지도 마련 서둘러야

최근 광주·전남에서 지반침하 또는 싱크홀이 잇따르면서 지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발생원인 조사와 사후 관리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반침하 등 관련 사고 발생건수조차 오라카라하는 등 지역민 안전은 뒷전인 채 '부서간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도교통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지역별 지반침하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발생건수는 모두 73건이며, 전남은 3건이다.

그러나 이는 국토부가 지난 2014년 11월 말 한국지질지리연구원에 의뢰해 '싱크홀 유형별 원인조사 및 정책제언 연구결과'에서 밝힌 수치와 판판이다. 당시 광주는 지반침하 발생건수가 지난 5년간(2009년~2014년 9월) 0건, 전남은 6건이라고 밝혔다.

광주는 73건이 갑자기 늘어난 반면, 전남은 오히려 3건이 감소했다. 조사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발생건수가 달라진 것은

국토부 발표 지반침하 발생 현황 보니

4년동안 광주 73건·전남 3건
지하내 조사선 각각 0건·6건
조사기관 따라 수치 오락가락

데, 이는 관련자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이 같이 수치가 오락가락한 이유에 대해 광주시는 그간 지반침하 발생장소 등에 따라 도로과(도로침하), 상수도사업본부(상하수도관 손상) 등에서 맡아왔으나 이달 중순부터 관련 업무가 한 부서로 총괄이 관되면서 행정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반침하 또는 싱크홀 발생 이력 및 관련자료의 축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명·재산 피해 등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석회암 지대인 무안·화순·장성 등 싱크홀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인데도, 발생유형별 원인조사 등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전남엔 금·은·동 광산 및 연·아연 광산, 철 광산 등 모두 68개의 폐광산(광해통계연보 2013년 기준)이 있는데 이들 폐광산은 적절한 광해복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싱크홀 발생 위험이 높다. 석회암 지대와 폐광산에서 주로 발생하는 싱크홀은 상하수관 손상·지하수 침투 등에 따라 일어나는 지반침하와 개념이 다른데, 인명·재산 등 피해규모 측면에선 싱크홀이 더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 2013년 광양 초남리에선 폐경도가 붕괴되면서 1m×150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2004년~2010년엔 무안 교촌리에선 3m×4m×8m 크기의 싱크홀이 수차례 생겼다.

이 같이 싱크홀과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선 각 지자체가 도로 함몰의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이력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심에서 지하공동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모든 지하시설물과 지층의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지하통합지도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 8개월만에 73억원 챙겨

광주경찰청, 일당 10명 적발

불법 경마사이트로 8개월 만에 73억원의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마사회법 위반)로 이모(5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불법 경마에 참여한 301명에 대해서도 배당액에 따라 마사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광주와 서울의 오피스텔 등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개설·운영해 73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주·전남·서울·제주 등 6개 지역에 관리자를 두고 회원을 모집한 뒤 매주 금·토·일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회원들이 배팅하도록 하고 배당금 외 적중하지 못한 배팅금을 챙겼다.

배팅을 위한 사이버머니 충전 시 충전금액의 15%를, 돈을 모두 잃으면 배팅금의 10%를 더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사이트에 계속 접속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배팅 상한 금액을 정하지 않고 수천 배의 최고 배당률로 회원들을 끌어들이었다. 1인당 배팅금은 적게는 10만원에서부터 280차례에 걸쳐 3억2000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범행이 알려지지 않도록 선·후배, 동네 주민 등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했고 주기적으로 사무실과 사이트 주

소를 변경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73억원의 배팅금을 범죄 수익금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국제청에 통보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송기주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스마트폰만으로도 인터넷 경마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어 일반 시민들이 일확 천금의 유혹에 빠져 재산을 탕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마사회와 정보를 공유해 불법 경마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호기자 jwpark@

횡령 혐의 경찰 소환조사 받은 수협 간부 숨진 채 발견

횡령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수협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목포경찰청에 따르면 전남 오후 2시께 전남의 한 수협 과장인 A(53)씨가 해남의 자신의 형 집 장고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수협 운영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

해 최근 2차례 목포경찰청에 소환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또 숨진 당일 수협중앙회 감사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경찰 관계자는 "최근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면서 "경찰 수사와 수협 감사를 받으면서 심적 압박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책보고 만든 '가짜 만병통치약' 13억여치 유통

광주남부경찰, 제조업자·한의사 등 무더기 적발

검증된 제조법과 관련 허가도 없이 엉터리로 만든 탕약과 환 등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전국에 유통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한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남부경찰청은 식재료를 마구잡이로 섞어 만든 제품을 질병 치료에 탁월한 것처럼 속이고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인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게 제품을 사들여 전국의 한의원에 팔아치운 경북지역 유통업자 남모(54)씨, 이를 환자들에게 판매한 김모(56)씨 등 한의사 20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 등 제조자들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여성초·삼백초 달인 물, 감초, 당귀, 쥐눈이콩, 쑥신나물 등을 혼합한 23가지 종류의 액상·환 등 제품을 판매해 12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만든 제품은 전국의 한의원 90여 곳으로 유통됐다.

입건된 한의사들은 지난 1월 이후 세 차례 이상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다른 약재와 섞는 방식으로 재가공해 환자들에게 판매했다. 한의사 일부는 여성초·삼백초 효소라는 광고에 속아 자신들이 직접 복용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 등은 한의학관련 서적 한 권을 바탕으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재료를 일부 넣고 만든 제품을 '암, 아토피 등 만병에 효험이 좋

다'고 시중에 팔았다.

암 또는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이들의 핏에 넘어가 단돈 1만원이면 충분히 제조하고도 남은 엉터리 제품을 1개월 분량에 80만~100만원을 주고 구입했지만, 효능커녕 되레 치료의 시기만 놓쳤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A(여·40)씨는 아토피를 앓고 있는 생후 18개월 아이에게 이씨 일당이 만든 액상 식품을 먹었다가 증상이 심해져 대학병원을 찾았고, 해남에 사는 B(52)씨는 암 완정을 받은 아버지를 치료하려고 제품을 구입했다가 치료 기회를 놓치고 인종을 지켜봤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서울에 본사를 둔 다단계회사에 제품을 납품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6일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직원과 공군부대 장병들이 무등산 규봉암 탐방로에서 흩터미에 묻힌 쓰레기 4.5t을 수거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제공>

무등산 30여년 묵은 쓰레기 4.5t 수거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무등산 규봉암 탐방로(해발 800m)에서 1980~1990년대에 버려져 흩터미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 4.5t을 수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음로 캔, 페트병, 과자 봉지 등 쓰레기는 눈에 띄지 않는 비좁은 비위틈 깊은 곳이나 땅속에 묻혀있었다.

자루 450개 분량인 쓰레기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 무등산 공군부대 장병, 자원봉사자 80여명이 1주일여 수거했다. 매립지까지 운반을 위해 헬기가 투입됐다.

무등산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지공

년말 일원에서 20여년 동안 방치된 폐철조망, 콘크리트 구조물 22t이 수거된 바 있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탐방로 주변에 매몰된 쓰레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과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경태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자원으로장은 "탐방문화 개선으로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탐방로 주변에서 쓰레기가 발견되고 있다. 이번처럼 과거에 매몰된 쓰레기를 발견한 탐방객들은 공단에 적극적으로 제보(061-371-1187)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남의 야산 죽순 뽑아갔다 벌미



○~이웃이 관리하는 야산의 대나무밭에 아침 일찍 올라가 죽순을 뽑아간 80대 노인이 주인의 신고로 경찰서행.

○~2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김모(80)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10분께 광산구 임곡동의 이모(55)씨가 관리하는 문중 선산의 대나무밭에 자생하고 있는 죽순 6개를 몰래 채취해 가져간 혐의.

○~범행 이틀날 산에 오른 이씨는 최근 눈여겨본 죽순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CCTV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마을 주민 탐문을 벌인 끝에 김씨를 검거.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신축 4층 상가 건물매매

전대정문 모아 A.P.T후문 코너자리

1층 (커피숍 입점)

2층~3층 (원룸 6개,투룸2개)
4층 (주택) 30평
화장실 2개, 방 3개, 다용도실

□ 월수익 → 500만

□ 매가 → 6억 8천만 (융1억5천)

010-6670-9800 010-7384-7800

(주)대신경매 법률경매 (특수물건 추천)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p>□ 동구 동명동 (8층상가 오피스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 211평, 건 606평 → 요양병원 추천, 주차 원비, 4차선 도로 접 → 법원조대 부근, 임대걱정 없음 <p>□ 감평가 19억 5천 - 최저가 13억 7천</p>	<p>□ 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p> <p>□ 매주 수요일 (오전)</p> <p>□ 입학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p> <p>☆ 경매 실전 교육 ☆</p> <p>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특수물건, 유저권, 가정임대인,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p>
<p>□ 서구 양동 (숙박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 174평, 건 424평 → 1층 (주차장,기운터) 2층~5층 (숙박시설,40개) → 광주은행 동쪽 인근, 약 10m 도로접 <p>□ 감평가 10억 8천 - 최저가 4억 8천</p>	<p>□ 북구 안암동 (5층 상가 건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 66평, 건 194평 → 지하음식점 1층~3층 (전71매) 4~5층(사무실) → 안암동 공구의거리, 광고효과좋음 <p>□ 감평가 7억4천6백 - 최저가 5억9천7백</p>
<p>□ 서구 화정동 (돔 나이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 800평, 건 2567평 → 광천 터미널 앞, 나이트 운영 <p>□ 감평가 140억 - 최저가 50억</p>	<p>□ 북구 매곡동 (4층 상가 상가건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 223평, 건 381평 → 1층 (식당) 2층~3층 (학원) 4층 (사무실) → 주변 아파트 단지, 4~5m 진입로, 주차원비 <p>□ 감평가 12억 - 최저가 12억</p>
<p>□ 남구 주월동 (5층 상가건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 103평, 건 380평 → 1층 (사무실) 2층~5층 (학원,사무실) → 재석초등학교 부근, 아파트,상가 밀집지역 <p>□ 감평가 7억9천6백 - 최저가 5억5천7백</p>	<p>(주)대신경매 직원구합니다.</p> <p>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p>
062-511-7800	010-6832-9700